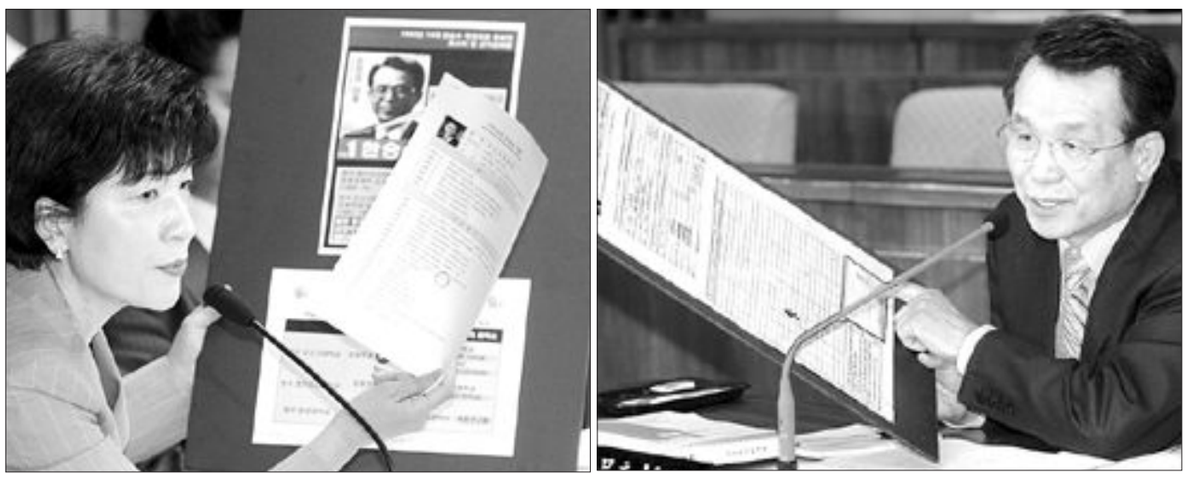
"소득신고 누락…허위학력 의혹"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공방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김영주(왼쪽) 의원이 학력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한 총리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보이며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허위 학력과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정권교체를 실감나게 했다.

이날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영국 요크대와 캠브리지 대학 경력과 관련해 허위 학력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국 요오크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실제 경력은 '보조강사'나 '연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공보물에는 교수로 기재, 허위경력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대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캠브리지대와 요크대 경력이 빠져 있다며 한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같은 당의 서갑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압구정동이 본격 개발되던 77년에 압구정동으로 이사 가고 81년에는 논현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 투기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형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88년에 송파구 방이동에 땅을 매입하는 등 땅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의 민병두 의원은 한 후보자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후보자는 2005년부터 영국계 금융기업 바클레이스 자문료로 매년 6만달러, 2004년부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세크 홀딩스 자문료로 매년 1만달러씩을 받았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2005, 2006년 종합소득신고에는 이 기록이 없고, 2004년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 적도 없다"고 따졌다.

"장남에 아파트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한번도 한적 없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국정경험을 부각시키면서 차기정부 초대 총리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공성진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승수 후보자에 대해 상당한 호감이 있다면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제기한 영국 대학에서의 경력 의혹은 허위과장 문제제기"라고 간접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도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석유 확보 및 북한 자원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달라 생긴 오해라면서 청문회 때는 오해를 풀기 위해 'Assistant Lecturer'라는 영어 표기를 그대로 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경대에서의 연구위원 경력을 교양학부 개원교수로 표기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한 후보자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양도세 등은 제대로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맹지(지적도에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 불과하며 땅값도 하나도 안 올랐다'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명박 정부 차관 누가 거론되나

기획재정 배국환·법무 명동성·행정안전 정남준씨 등

호남인사 내부 발탁 기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 정부 초대 각료 인선을 완료한 뒤 차관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인측은 오는 29일 장관 임명과 동시에 제청을 받아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제부처**=차관 두 자리 가운데 한 명은 재경부, 한 명은 기획처 출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경부 출신으로는 최중경, 인수위 전문위원이 가장 많이 거론되며 역시 인수위에 파견 나가 있는 조원동 차관보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힌다.

기획처 출신 후보로는 김대기 재정운용실장과 목포 출신의 배국환 재정전략실장, 이용걸 정책홍보관리실장, 강태혁 공공혁신본부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산업·무역·기술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에는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과 홍석우 무역투자실장이 경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식품부 1차관으로는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김달중 차관보 등 내부 1급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이재영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이름이 우선 거론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남인희 청장과 송용찬 차장,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외교·국방·법무**=제1(양자 외교 담당), 2(다자 담당)로 나눠진 외교부 차관의 유력 후보군으로는 김성환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신정승 경기도 국제자문대사, 박상기 대테러대사가 거론된다.

국방부의 경우 내부인사로는 현재 차관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광섭(58·육사29기·육군소장) 자원관리본부장과 최 운(57·육사30기·예비역준장) 인사복지본부장, 전제국(55·행시22회) 정책홍보본부장이 거명되고 있다.

법무부는 강진 출신의 명동성(20회) 서울지검장과 제주 출신의 박영수(20회) 서울고검장이 유력한 차관후보로 거론된다.

◇**사회·교육·문화**=행정안전부 1차관(조직·인사 담당)에는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과 광주 출신인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교육과학부의 경우 김경회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김왕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광조 인적자원정책본부장, 김정기 차관보, 박경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문화관광부 차관에는 주간조선 편집장 출신의 신재민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 1팀장이 일찌감치 차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 차관에는 위옥환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이보경 문화산업본부장, 김장실 종무실장, 권경상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단병호의원 총선 불출마·탈당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인 단병호 의원은 20일 탈당 및 18대 총선 불출마 방침을 선언했다.

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진보정당이 계속 단일한 대오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게 누적돼 왔다"며 탈당과 불출마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해야 할 부분 등이 있어 3월 초·중순께 탈당계를 내게 될 것 같다"며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이에 대한 실질적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며 불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경북 포항남.울릉 출마를 준비해 왔다. /연합뉴스

광주 민심·정치권 이해 맞물려

문화수도조성위 존치 합의 배경

아시아문화중시도시조성위원회(이하 문화도시조성위)가 폐지 위기를 넘기고 존치된 것은 광주시민들의 폐지 반대 민심과 이에 따른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

4·9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화도시조성위 폐지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최고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원내 대책을 총 책임지는 김효석 원내대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에 유선호·지병문 의원이 포진돼있는 상황에서 문화도시조성위가 폐지되면 3명의 의원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판이었다.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문화도시조성위를 존치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협상은 없다고 버텼으며 문광위 소속 두 의원도 상임위에서 조성위 폐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며 통과를 저지했다.

또 문화도시 조성의 중심지가 될 광주 동구 지역구의 양형일 의원도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와 한나라당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 존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역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한나라당도 외면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4·9 총선에서 호남 공략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한나라당이 새 정부 인사소외에 이어 문화도시조성위까지 폐지할 경우 지난 대선 때 얻은 8~9%의 득표율은 커녕 5% 미만의 득표율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양 의원도 "향후 문화수도 조성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장에 김종빈씨 사실상 내정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에 김종빈〈사진〉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명박 당선인측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총장이 국정원장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라며 "정부 출범 직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무엇보다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 등 새 정부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상황에서 국정원장에는 여수 출신인 김 전 총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게 인선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2005년 수사 지휘권 파동 등에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당선인측 인사는 "김 전 총장은 검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있어 정권 초기에 국정원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금융위원장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앞서 있는 가운데, 이창용 서울대 교수와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도 거론된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도 유력 후보였으나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배제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당선인이 어 전 총장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